

흐르바츠코자고레 지방의 아동용 목재 장난감

크로아티아 북부 지역에는 수 세대에 걸쳐 수공예 목재 장난감을 제작해 온 장인들이 산다. 이 전통은 대량 생산되는 플라스틱 장난감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장인들은 어린 시절 소박한 기쁨이었던 목재 장난감 제작을 이어 나가고 있다.

Toy Story

For generations, craftspeople in northern Croatia have been making handcrafted wooden toys. Though the tradition has faded in the face of mass-produced plastic toys and video games, a small group of artisans perseveres in fashioning these reminders of childhood's simple pleasures.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문을 등지고, 스체판 미쿠시는 의자에 앉아 작은 목재 장난감 말의 비스듬한 모서리를 투박한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다. 소박한 작업실 구석에는 톱밥이 쌓여 있고, 너도밤나무와 피나무 자투리, 각종 연장이 작업대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 막 잘라 낸 나무 특유의 향이 공기 중에 가득하다. 스체판은 크로아티아 북부 흐르바츠코자고레 지방의 마리아비스트리차 인근 마을인 라즈스투비치키에 거주하며 40년이 넘도록 전통 목재 장난감을 만들어 왔다. 스체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장난감 제작을 시작한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웠다”며 “아버지 작업실에서 처음 일을 배울 때가 열 살이었고, 그 이후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 봤다”고 말했다.

마리아비스트리차 지역의 목재 장난감 제작 전통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순례지로 유명한 이 마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눈의 성모 마리아’ 성지와 15세기 말 혹은 16세기 초에 세워진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이 성지로 향하는 길에 라즈스투비치키와 투고니차 마을이 있다. 두 마을은 오래전부터 목재 장난감을 제작해 왔고, 이 장난감은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자녀에게 선물로 사 가기 좋은 기념품이었다. 더군다나 마리아비스트리차와 자그레브 사이에 위치한 울창한 메드베드니차산의 북쪽 사면에는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이 자란다. 스체판은 장난감을 만들기 가장 좋은 나무는 내구성이 뛰어난 너도밤나무라고 말한다.

한때, 이 지역에서는 100종이 넘는 목재 장난감을 제작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종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금도 만드는 전통 장난감으로는 바퀴가 달린 말과 함께 옷장, 아기 침대, 탁자, 의자 등의 미니어처 가구, 긴 막대 손잡이가 달려 바퀴 부분을 바닥에 대고 밀면 날개가 펴졌다 접혔다 하는 나비 장난감 등이 있다. 이런 목재 장난감은 지난 세기 동안 거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지만, 대신 자동차, 전차, 비행기, 트랙터, 증기 기관차 등 새로운 장난감이 추가되었다. 스체판에게 특별히 더 즐겨 만드는 장난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증기 기관차’라고 말했다.

처음 나무판자를 잘라 모양을 잡을 때는 전기 띠톱과 드릴 프레스를 사용하지만, 그 후로는 연장을 이용해 수공으로 한다. 전통 연장으로는 목재 바이스, 손잡이가 두 개 달린 대패 등이 있다. 요즘에는 못을 박는 대신 집착제로 접합부를 연결하는 추세고, 재료 구하기도 쉬워졌다. 넓은 면은 붓으로 페인트칠하고, 꽃이나 장식 무늬처럼 섬세한 부분은 가는다란 분사구가 달린 용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Stjepan Mikuš sits at a bench, the bright midmorning sunlight streaming through the window behind him, and runs a rough carpenter’s thumb across the beveled edge of a small toy wooden horse. Sawdust fills the corners of the simple workshop, tools and offcuts of beech and linden lie scattered across a work surface, and the scent of freshly cut wood fills the air. Stjepan, who lives in Laz Stubički — a village near Marija Bistrica, in the Hrvatsko Zagorje region of northern Croatia — has been making traditional wooden toys for over 40 years. “I learned from my father, who started making them after the Second World War,” he says. “I was 10 years old when he started teaching me in his workshop, and from that moment on, I never wanted to do anything else.”

The tradition of making wooden toys in the villages around Marija Bistrica stretches back to the 19th century and is historically linked to the town’s importance as a pilgrimage site. The Marian shrine of Our Lady of the Snow, with its much-venerated late 15th- or early 16th-century wooden Black Madonna statue, draws well over half a million faithful to Marija Bistrica each year. Pilgrimage routes leading to the town pass the villages of Laz Stubički and Tugonica. Both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the making of wooden toys, which made for good, convenient souvenirs and presents for pilgrims to take home to young children. Furthermore, here on the northern flanks of Medvednica, the forested massif that lies between Marija Bistrica and Zagreb, the landscape is rich in beech, maple, willow and linden trees. Stjepan says that beech is the most durable and therefore the best for making toys like the horse he’s holding.

At one time, over 100 types of wooden toys were made in this area, although the number made today is less than half that. Traditional forms that are still made include a horse on wheels; miniature furniture, such as wardrobes and matching tables and chairs; a butterfly on wheels with wings that flap as it’s pushed along on a wooden pole; and a distinctive, zoomorphic flute with a cockerel or other bird on top (*žveglica*).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to these forms over the past century or so, though over the years, traditional forms of wooden toys have been supplemented



흐르바츠코자고레 지방에서 40년 넘게 목재 장난감을 만들어 온 스체판 미쿠시
Stjepan Mikuš is a craftsman who makes traditional wooden toys in the Hrvatsko Zagorje region of Croatia.



장인들의 장난감 스체판의 작업실에 있는 동안 스체판의 이웃에 사는 이반 미쿠시가 방문했다. 두 사람은 성(姓)은 같지만, 친척은 아니라고 한다. 스체판은 웃으면서 이 마을 주민 절반가량의 성이 미쿠시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반 역시 목재 장난감 장인이었고, 특히 일종의 피리인 ‘주베글리체’를 많이 만들었다. 그는 콤포베츠에 있는 ‘스타로 셀로 박물관’에서 발간한 오래된 소책자에 실린 자신의 작품 사진을 보여 주었다. 책자 속 사진을 가리키며 자기 작품과 스체판이 지금 만드는 것은 같지 않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전문가만 알아들을 법한 미세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장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1층 작업실에서 나와 2층에 있는 스체판의 집으로 가서 식탁 앞에 앉았다. 하얀 식탁보 위에는 화분에 담긴 꽃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목재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스체판은 작업 중이던 장난감 말의 안장에 페인트를 칠했다. 스체판의 아내 드라기차가 옆에 앉더니 나머지 부분을 칠했고, 처음 바른 페인트가 충분히 마른 다음 세부 장식을 그려 넣었다. 목재 장난감을 칠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자의 몫이지만, 그날

by more recent shapes, including cars, airplanes, tractors and steam trains. I ask Stjepan if he has a favorite, one he particularly enjoys making. “The steam train,” he replies with a shrug and a broad smile.

Although an electric band saw is used to cut the initial shape from a plank of wood, and a drill press is often employed, most of the work is still done by hand, using a mixture of modern and traditional tools — the latter including a wooden vise and a two-handled plane. These days there’s a preference for gluing the joints instead of using nails, and sourcing materials is simpler. Paint is applied to large areas with a brush, while details of flowers and tracery are added using various tools, including containers with slender nozzles.

While I’m at Stjepan’s workshop, his neighbor Ivan Mikuš stops by for a chat. The two aren’t related; half the village has the surname Mikuš, Stjepan explains with a chuckle. Though he’s now retired, Ivan also once made

해야 하는 작업량에 따라 남자가 나무 깎기와 칠하기를 모두 하기도 한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는 없다. 스체판은 그저 장난감 장인의 가족들이 수 세대에 걸쳐 그렇게 일해 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라즈스투비치키를 떠나 다른 목재 장난감 장인 다니엘 하이니치와 함께 그의 가족 작업실이 위치한 투고니차로 갔다. 투고니차는 마리아비스트리차에서 북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이다. 다니엘은 아버지 스체판, 어머니 주르지차, 아내 마리아나와 함께 일한다. 학창 시절 다니엘의 꿈은 요리사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안의 전통을 이어 목재 장난감 만드는 일을 배워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다니엘은 그때

일종의 피리인 ‘주베글리체’는 주로 새 모양으로 디자인된다(왼쪽 페이지). 지금도 만드는 전통 장난감은 바퀴가 달린 말을 포함해 옷장, 아기 침대, 탁자, 의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미니어처 가구 등이 있다(아래).

Žveglice, zoomorphic flutes usually topped by a bird, are just one of the wooden toys crafted in the region (opposite). Other traditional forms include miniature furniture, such as cribs, wardrobes and chairs, like those made by Danijel Hajnić (below).

wooden toys, specializing in *žveglice*. He shows me photos of his work in an old booklet published by the Staro Selo Museum in Kumrovec. They’re not the same as the ones Stjepan makes, he says, waving his arm at the pictures while the two men discuss the finer points of their craft. Everyone has their own recognizable style.

We leave the ground-floor workshop and walk upstairs, entering Stjepan’s house and taking a seat at the dining table. Atop its white tablecloth sits a potted flower, around which is spread a variety of wooden toys. Stjepan paints the saddle of the horse he’s been working on. Then his wife Dragica sits down and paints the rest of the body, adding decorative details after the first coat of paint has dried. It’s traditionally women who paint the wooden toys, though these days some men might do both the carving and painting. There’s no particular reason for this division of labor — that’s just how families of toy makers have worked for generations, says Stjepan.



자신이 나무 만지는 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애는 이 집안에서 3대째 나무 장난감 장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아버지가 작업실 반대편에 있는 아들 다니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배웠고, 다니엘은 저한테 배웠죠.”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탐부리트자’를 전문으로 만든다. 탐부리트자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의 민속 음악에 널리 사용되는 소형 전통 현악기다. 비록 장난감이지만 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 조율도 가능하다. 피아노의 음계와 비교해 장음계의 음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나무 지판(指板)에 표시한 뒤 프렛을 새긴다. 피아노 연주가 취미인 다니엘은 수십 년 전에 제작된 탐부리트자 2개와 자신이 제작 중인 전기 기타를 닮은 새 장난감을 꺼내서 보여 줬다.

다니엘은 밖으로 나가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벚꽃나무 널빤지 조각을 한참 뒤적거렸다. “나무를 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잘린 널빤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죠.” 작업실로 돌아온 다니엘이 장난감 탁자와 의자의

THE YOUNG TOY MAKER From Laz Stubički, I drive with Danijel Hajnić, another wooden toy maker, to his family’s workshop in Tugonica, a village just a few kilometers northwest of Marija Bistrica. Danijel works with his father and mother, Stjepan and Đurđica, as well as his wife Marijana. Through secondary school, Danijel had planned to become a chef. It was only later, when his father suggested he learn to make wooden toys since it was a skill already in the family, that he discovered his love of working with wood. “He’s the third generation of wooden toy maker in this family,” says his father. “I learned from my father. Danijel learned from me.”

Danijel and his family specialize in making toy tamburitzas — small, traditional stringed instruments used widely in the folk music of Croatia, Serbia and Bosnia. Although toys, they’re made to be played and can be tuned accurately. Danijel brings out two tamburitzas several decades old, as well as a new toy he’s making with the



일반적으로 남자가 나무 꺾기를 마치고 나면 여자가 칠을 해 장난감을 완성한다(왼쪽 페이지). 목재 장난감은 지난 세기 동안 형태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대신 자동차, 전차, 비행기 등 새로운 장난감이 추가되었다(위).

Men generally carve the wooden toys, while women paint them in bright colors and add decorative details (opposite). Over the years, craftspeople began supplementing traditional designs with more modern forms such as cars, trams and airplanes (above).

제작 과정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전기 띠톱을 이용해 널빤지를 필요한 모양으로 자르고 각각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은 뒤, 연결 부위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었다. 다니엘은 능숙한 망치질로 구멍 안에 얇은 나무 조각을 끼워 넣어 나무토막을 연결했고, 끝부분은 사포를 이용해 매끈하게 다듬었다.

한편, 다니엘의 아버지는 작은 탐부리트자를 조립했다. 우선 너도밤나무 목재로 만든 몸통을 드릴 날로 파내고, 끌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거기에 지판을 연결하고 더 부드러운 목재로 만든 공명판을 붙였다. 그런 뒤 다음 제작 단계를 기다리는 다른 많은 악기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 다니엘의 어머니가 작업실에

body shaped like an electric guitar’s.

After rummaging through some roughly cut planks of beech, maple, linden and cherry outside, Danijel returns to the light-flooded workshop. “I thought I’d show you the different stages of making a toy table and chairs,” he says. After cutting the shapes from a plank using a band saw and smoothing the edges of each piece, he drills small holes that will be used to make the joints. The pieces are glued together, a thin piece of wood is driven through the holes and then the end is sanded flat by hand.

Meanwhile, Danijel’s father is assembling a small tamburitza. The beechwood body is first hollowed out with a drill bit, then more finely with a chisel. Next it’s joined to the neck, and a soundboard made of softer wood is attached. Then the instrument is added to a pile of others awaiting the next stage of production. Danijel’s mother comes over from the house and begins painting the table and chairs. She applies a coat of bright, glossy red paint,





전통적인 장난감과 더불어 병창고나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장식품도 제작한다.
The region's traditional wooden toys have been adapted into other types of souvenirs, such as refrigerator magnets.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탁자와 의자를 칠하기 시작했다. 빨간 유광 페인트를 칠한 뒤 한쪽으로 치워 놓고, 이전에 칠을 마쳐 완전히 건조된 장난감에는 장식 꽃무늬를 그려 넣기 시작했다. 이 가족의 협업 과정이 사뭇 아름다웠다.

호르바츠코자고레 지방의 아동용 목재 장난감 제작 기술 전통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정통 목재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마리아비스트리차 인근 마을에서 이 오래된 전통을 잇는 사람은 극소수다. 라즈스투비치키에 5명, 투고니차에 4명밖에 안 남았다. 스체판 미쿠시와 다니엘 하이니치에게 2008년 혹은 그 이전에 촬영한 장인들의 사진을 보여 줬을 때, 그들은 은퇴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하나씩 짚어 냈다. 스체판 미쿠시에겐 가끔 일을 돕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30대인 다니엘이 장난감 제작자 가운데 가장 어린 축에 속한다.

이튿날, 마리아비스트리차의 교회 옆길을 걷다가 다니엘, 그리고 역시나 현지 장난감 제작자인 이비차 메사르를 만났다. 그들은 직접 만든 장난감 말, 미니어처 가구와 함께 봉헌 양초, 십자가상, 작은 성모 마리아상 등을 팔고 있었다. 전통 목재 장난감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기는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다. 쉽게 버리기 좋은 값싼 플라스틱 장난감과 비디오 게임이 넘쳐나는 시대에, 제아무리 내구성 좋고 저렴하다지만 목재 장난감을 찾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다. 그들의 목재 장난감은 대부분 지역 축제나 작은 마을의 시장 가판대에서 팔린다. 수도 자그레브의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시장 같은 대규모 축제에 자릿세를 내고 제품을 판매하는 건 목재 장난감 제작자에게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희망적이다. 그는 새로 설립된 마리아비스트리차 방문자 센터에서 크로아티아 전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방을 운영한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은 전통 목재 장난감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만든 장난감을 집에 가져간다. 쌍방향 멀티미디어실도 마련되어 있다. 또 장난감 탐부리트자를 시골 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즈스투비치키를 떠나기 전, 스체판 미쿠시에게 왜 목재 장난감을 만드냐고 물어봤다. “이 일이 즐거워서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차피 돈이 안 되는 일이기에 돈보다는 개인적 만족이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마리아비스트리차 인근에서 만난 목재 장난감 장인들 역시 하나같이 그렇게 답했다. “이건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저는 지역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전통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글 사진 루돌프 에이브러햄

then sets them aside and starts to add decorative flowers to a set that she has painted earlier and is already dry.

In 2009,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of children's wooden toys in Hrvatsko Zagorje was inscribed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pite the recognition, the number of people making authentic wooden toys here is diminishing. There are few active craftspeople around Marija Bistrica, and at least two of them are nearing retirement. I show Stjepan Mikuš and Danijel Hajnić photos of craftspeople taken back in 2008 or earlier, and they count off those who have retired or passed away. Stjepan has a son who sometimes works with him, but he's looking for other work, and Stjepan doesn't think he'll continue. Danijel, who's in his thirties, is one of the youngest toy makers.

The next day, while walking down a street beside the church in Marija Bistrica, I find Danijel and Ivica Mesar, another local toy maker, selling their toy horses and miniature furniture alongside votive candles, crucifixes and small statues of the Virgin Mary. It's increasingly hard to make a living crafting traditional wooden toys. In an age of cheap, disposable plastic toys and video games, fewer people are buying wooden toys, despite the fact that they last for years and cost very little. Most are sold at local fairs and market stalls in small towns. Renting a stall at a larger fair in Zagreb, such as its Christmas market, is financially unworkable for wooden toy makers.

Despite the difficulties, Danijel remains upbeat. He runs workshops for schoolchildren from across Croatia at Marija Bistrica's new visitor center. There, children learn to make traditional wooden toys, which they get to take home with them. Additionally, toy tamburitzas are given to schools in rural areas, so this traditional craft becomes part of students' musical education.

Before leaving Laz Stubički, I ask Stjepan Mikuš why he makes wooden toys. “Because I enjoy it,” he says. He doesn't do it for the money, since it doesn't pay very well. It's the same reason given by all the toy makers I've spoken to around Marija Bistrica. “It's interesting work, and it's an authentic local tradition that I want to see continue, that I want to help preserve.” ● Text and photographs by Rudolf Abraham